

[로스쿨 합격기]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께

- 1987년 9월 생
- 서울 반포고등학교 졸업(2006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10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이 효 은

I. 들어가며

작년 이맘때에는 입학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로스쿨에 들어와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니 새삼스럽습니다만, 저의 이 글이 로스쿨입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씁니다.

II. 마음가짐 (공부시작 전에...)

이미 리트까지 친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겠지만, 우선 입시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로스쿨을 왜 가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이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입학준비를 할 때에도,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를 세워보겠다, 법조계의 반석이 되고 싶다 등 이런 거창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법적인 사고나 공부와 맞는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솔직한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 로스쿨이 생기기 이전에 변호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학교를 다니며 1년 반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기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고시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을 갈 것인지. 하지만 고시공부를 하다 보니 학부공부에 소홀해 지고 혼자서 공부하는 고시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는 로스쿨이 저의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 3학년 2학기 말에 로스쿨을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깊이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학과 공부보다 법공부가 더 적성에 맞았습니다. 양이 방대해 주눅이 들었지만 멀리 바라보고 시작한 공부라 다급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법을 접하지 않아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더 불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고시공부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시점에 미리 법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에 관련된 교양서적이나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읽어보고 본인이 어떠한 성향인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리트는 사실상 법 공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리트를 잘 보시는 분이더라도 법적인 사고방식이나 학문의 경향과 본인이 맞는지는 꼭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음가짐은 비단 공부에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자신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엔 본인이 왜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며, 변호사가 된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자기소개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위 자신만의 플롯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변호사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에서 활동할 방법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분야와 연결이 되어, 법을 배우면 이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법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입시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해보지 않았던 법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Ⅲ. 조건 검색 (공부시작 전에.....)

저는 로스쿨 입시가 대학입시와 다소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요즘은 대학에서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로스쿨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리트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외에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과 자기소개서를 채울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이제 막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겨울 혹은 그 전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요건이 되는 지입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재학 중이시라면 올해 졸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리트점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점이므로 학점관리를 할 시간이 남아있다면 예쁘게 세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학점을 많이 듣지 않아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남은 5학기(겨울, 봄, 여름, 가을, 마지막 겨울학기)를 완전히 채워서 들으면 다행히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시를 하면서도 로스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학점에 손을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입학을 목표로 하기에는 낮았기 때문에 원서를 내기 전까지 적용되는 3학기(겨울, 봄, 여름학기)성적을 모두 A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제가 저에게는 리트공부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리트시험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09년 리트기출문제를 시간을 채서 풀어봅니다(www.leet.or.kr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쉽게 풀리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언어를 잘 하시거나 논리와 추리적 사고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리트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영역은 지문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고 문제유형을 나눠 각 유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내는 연습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추리영역도 마찬가지로 자꾸 사고하는 연습을 하면 머리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전년도 기출을 풀어보라는 이유는 제한된 기간 동안 리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의 요소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영어점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영어점수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부족하다면 겨울동안 영어점수부터 올려놓아야 합니다. 토익, 토플, 텡스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되 토익이나 텡스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 학교가 있다면 꼭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타요소는 자기소개서를 채울 각종 활동경력들입니다.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경력, 직장경력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모아보고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고시 합격사실, 변리사자격증, 사법고시 2차합격 등이 아니라면 다른 경력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판으로 남겨두기보다는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는 원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은 한자 1급 외 제 2외국어 시험성적 정도만이 유효합니다. 봉사활동은 여유가 있다면 겨울부터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제출을 앞두고 급하게 한 봉사활동경력은 안 내느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인턴경력이나 직장경력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유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로스쿨 준비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와 대통령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을 저의 진로와 연결시켜 자기소개서에 썼습니다. 각종 경력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미리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원서접수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 리트공부

리트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서점과 학원 그리고 지인입니다. 저는 리트 시험 자체가 시작하지 얼마 안 되서 문제집이 종류는 많지만 선별되지 않아 오히려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좋지 않은 문제집도 있다고 지인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 서점에서 무작정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얻고 시험유형도 배워볼 겸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은 개인의 선택여부입니다.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강과 인강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다 같이 시간에 맞춰 수업을 듣고 질문이 가능한 실강을 선호하는 편이라 직접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무조건 유명강사라고 신청하지 말고 설명하는 방법이나 난이도가 자신

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종합반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리트스터디를 짜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학원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선호와는 맞지 않아 문제 유형이 낮은 추리영역만 단과반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학원 강의와 자습을 병행하였는데 추리영역은 리트 시험을 칠 때까지 꾸준히 듣고 언어와 논술은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영역의 경우 우선 수능과 비슷한 지출문제를 비교해보니, 리트 시험이 지문이 더 길고 내용에 깊이가 있을 뿐 문제 유형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던 방법으로 먼저 수능지출문제의 지문을 분석했습니다. 수능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수능이 리트보다 쉽기 때문에 이를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만 보고 주제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비문학의 경우 대부분 첫 단락 나아가 첫 문장에 주제어와 주제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읽어 내려가지 말고 첫 문단이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정리한 후 다음을 읽어 내려가면 지문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지문만 가지고 주제잡기 연습을 한 후 문제를 풀니다. 주제잡기가 되면 주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나 문맥의 흐름을 묻는 질문, 비판에 대한 질문 등이 한 맥락 속에서 풀리게 됩니다.

저는 겨울방학 동안은 수능지출문제와 리트지출문제,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연습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내내 했습니다. 하루에 세 지문씩 정도만 했지만 지문을 꼼꼼히 주제 분석해서 나중에 실전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제 분석이 안 되면 지문이 읽히지 않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우수수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3,4월에는 언어영역 문제집을 사서 슬슬 리트수준에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선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힌 다음 틀린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지문만 다시 주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차분히 주제 분석을 다시 한 후면 정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후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체크했습니다. 주제 찾기, 의미 찾기, 비판하기, 추리하기, 기타문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제가 어디가 약한지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제 찾기를 더 빨리 정확하게 해서 지문을 파악하기 위해 풀었던 문제도 두 번 이상 주제를 잡고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문제집 해설에 보면 주

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맞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주제를 잡고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6월에는 학원모의고사반이 있는데 오히려 문제집보다 문제의 질이 좋고 긴장감 속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습니다. 해설 강의까지 듣고 도서관에 와서는 2분을 채서 지문의 주제를 다시 잡고 문제를 다시 풀 후 주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이와 함께 PSAT언어영역 문제를 시간 맞춰 풀고 똑같이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비교적 푼 문제집 수는 적지만 하나하나 주제 분석을 하고 문제를 다시 풀다보니 시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작정 풀고 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8월에는 이제 진짜 시간과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겨울방학부터 해왔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7,8월 모의고사 문제까지 합쳐서 제가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이 틀리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연습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3개 이상 주제 찾기하는 연습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실전에서 언어영역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약했던 유형에서는 여전히 허점을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긴장을 하다보니 집중력이 흐려져서 연타로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주제 파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리영역을 시작할 때는 시간을 재기보다는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부분 추리영역은 처음 접하는 데다 논리력과 추리력을 요하기 때문에 경직되었던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추리영역은 답을 알고 나면 그 풀이 방법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학원강의를 듣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 해설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다시 풀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학원단과반과 PSAT문제집을 이용했습니다. 혼자 복습할 때는 맞은 문제도 포함해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쉽게 맞춘 문제는 빨리 넘어가되 어렵게 맞춘 문제는 어떻게 풀었더라 하고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먼저 풀어본 후 해설을 보았습니다. 겨울방학 때까지는 학원문제집과 시중에 출판되는 문제집 이렇게 2권을 풀었습니다. 3,4월부터는 시간을 재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PSAT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보고 답을 맞히지 않고 다시 시간을 두고 옆에다 다시 풀 후 답을 맞춰 보았습니다. 아직은 시간 내에 답을 푸는 것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정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고 나중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시간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5,6월부터는 모의고사 반이 있었는데 이쯤이니 추리문제에 익숙해져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의고사를 풀다보니 난이도에 무관

하게 틀리는 개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틀린 문제 중 쉬운 문제는 “아 이거였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틀린 문제일수록 더 기억하고 실수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8월에는 모의고사 문제 빼고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리트기출문제와 PSAT기출문제,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문제 모두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것만해도 꽤나 양이 많았습니다. 중요도는 기출문제와 정기 모의고사문제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다시 보면서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을 위해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어렵게 푼 문제 중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주로 모았습니다.

추리영역시험은 이산수학같은 추리영역이 있고 언어처럼 지문을 읽고 푸는 논리영역이 있는데 추리영역이 더 낫설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더 집중했었는데 이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1회 시험은 PSAT를 많이 모방하여 추리영역이 많이 나왔지만, 정작 2회 시험은 리트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논리영역이 많아 추리영역에 익숙했던 저는 당황하고 예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형이든 골고루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술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온 세대라 다른 영역에 비해 부담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첨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원강의를 선택했습니다. 5,6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해설강의는 좋아하지 않아 소규모로 토론을 하는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논술은 결국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선생님의 일반적인 해설은 같은 글을 쓰게 하는 데다 특히 주장하는 글쓰기는 정답이 더욱 없기 때문에 일반적 해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논술에서 난점은 시간 맞추기와 글을 간결하게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두 번 이상 천천히 읽어 문제가 무엇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는지 파악한 후 지문을 읽고 다시 문제를 읽고 개요를 짰습니다. 또한 개요에 많은 시간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성격이 조금한 편이라 개요를 짜다가 완성하지 않고 글을 써버리는 데 이르면 글의 흐름이 없어져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요를 짜놔도 자기 글에 몰입하다보면 개요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문제는 서론 쓰기였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창한 서론을 써야겠다는 압박감에 서론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는 했는데 언어영역에서 첫 문단에서 주제찾는 연습을 하니가 논술 서론 쓰기에서도 간결하게 주제를 집어넣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론을

나중에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흐름을 위해서는 순서대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논술실력을 늘리는 데 좋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첨삭을 받지만 그냥 읽어볼게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연습도 하고 개요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매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기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V. 영어성적

저는 텡스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올리고자 겨울방학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해커스에서 수업을 듣고 영어스터디에서 단어를 외우고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텡스는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강 후에는 강남에서 이익훈영어학원에서 새벽 토익반을 들었습니다. 영어학원수업의 유용성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겨울에 스터디에 참여해 단어시험을 보고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아 개강 후에는 학점과 리트공부, 영어공부까지 하기 중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은 꾸준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고 신청하기 어렵지만 텡스나 토익은 매달 신청해서 보다보면 실력도 늘고 운이 좋으면 문제가 쉽게 나오기도 해서 영어공부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매달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VI. 생활

저는 학교를 다니며 리트를 준비해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과는 스케줄이 다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동안은 리트공부보다는 영어점수를 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학원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한 후 도서관에 와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리트 공부를 하고 주말에 리트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계절 학기는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는 학점과 리트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딱 채워서 학점을 들어야 하는데다가 학점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학기 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어는 일주일에 3번 새벽반을 듣고 공부는 주말에 정기적으로 시험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중에 학원에 가서 추리수업을 듣고 돌아와서 복습하였습니다. 5,6월에는 주중에 언어모의고사강의와 주말에 논술강의를 추가해서 들었습니다. 7,8월에도 계절학기가 있었지만

방학이라 혼자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험 전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여유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력관리차원에서 1학기까지는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에는 공부하다가 지루해지면 학교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하였고 개강 후에는 새벽에 영어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상포진과 시험 직전에 유행이었던 조류독감에 걸렸을 때도 체력을 쌓아놓은 덕분에 많이 앓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날짜가 다가올수록 풀었던 문제가 안 풀릴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종종 짜증이 나고는 합니다. 그럴수록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중이라고해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계절이 좋을 때 여유를 가지고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VIII.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이 글이 기고가 될 때에는 이미 리트시험을 친 후일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대부분은 점수는 주어졌으니 그에 따라 학교별 입학전형에 따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리트시험이 끝나고 머리로 식힐 겸 잠시 쉰 후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거나 스터디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과정, 성격, 학업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 학교마다 원하는 유형에 따라 쓰겠지만 재미있게 쓰기보다는 흐름이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면 면접관들이 더 흥미롭게 읽을 것입니다. 성장과정이나 성격은 결국엔 대부분이 비슷하게 좋은 말을 쓰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온화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혹은 ‘저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매사에 열정적입니다.’ 등의 문장입니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재미있고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특히 활동 중 자신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에피소드로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점에 두고 성장과정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로스쿨도 이 과정 속에 있으므로 입학하기를 희망한다는 방식으로 썼

습니다. 활동내역의 경우 에피소드가 많아 오히려 추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 제한된 분량에 쓰기가 힘들어 잘 고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쓴 자기소개서는 스터디원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첨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연대로 고쳐도 완성이 안 되지만 객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면접준비는 실전연습, 자료읽기, 긴장하지 않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실전연습은 스터디가 가장 유용했습니다. 저는 리트준비를 할 때에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빼고는 서로연 등의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스터디 그룹에 들어갈 때는 유용합니다. 학원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면접은 사실 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저녁에 모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작년 기출문제들을 분담해서 문제를 내오면 돌아가면서 토론하였습니다. 시간은 주로 3시간 내외, 인원은 10명 내외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두고 토론도 하고 여유롭게 진행하다가 면접 때가 다가오면서는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씩 지원자가 되어 연습했습니다. 자료는 학원이 가장 많지만 실제로 시험을 치고 난 후 생각해보니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만큼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언론의 이슈들을 1년 단위로 모아둔 책과 네이버에서 올해의 이슈들 카테고리를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문제가 다르지만 이슈와 논점거리들 정도만 훑고 간다면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않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가도 준비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순발력을 발휘해서 논리정연하게 대답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을뿐더러 설사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나왔다 하더라도 논리가 있으면 짧은 면접시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에 따라 면접문제를 물어보기 보다는 지원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당일 날 순서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보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실제로 면접하는 동안 문제에 대한 답은 쪽 엷는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하고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왜 로스쿨에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짧은 생각입니다만 저는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받고 답을 준비하는 시간은 겨우 10분 남짓. 판건은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지, 설령 몰라도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로스쿨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것 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III. 마무리하며

로스쿨 준비과정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모른 채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1기보다야 나왔겠지만 입학제도, 시험유형, 문제집 등 모두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아직까지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준비과정에 잘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되돌아보며 유용할 만한 것을 적은 것이니 잘 선별하고 읽으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리트시험을 치시고 원서접수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소개서이든 면접이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일관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